

6월의 기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20:3>

- 1.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5. 메르스(MERS) 질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멘-

DCEM 성회안내

2015년 7월 22일에 일본 순복음동경교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축복 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인,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안희순, 이형춘,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성령님 안에서의 정신적인 치료

사람은 육체만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이 듭니다. 정신적인 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병든 것인데 무능력, 무기력, 패배주의, 고질적인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우울증 등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엔돌핀을 생성하기 때문에 치료가 넘쳐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가 마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질병은 심인성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치료계의 거두인 레오나르드 캄머 박사는 30년 동안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는 정신 건강을 위해 인간관계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대부분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환자들 중에는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혹은 모르는 사람이 걸었던 말 한 마디가 치료를 가져 오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처방하는 치료와 간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받았던 관심과 사랑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깊은 병인데 전화 한 통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것이 마음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따뜻한 손길 한번 스쳐가는 것이 마음에 큰 감동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돌아가서 관심 어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료하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자꾸 꾸짖고 결점을 들춰내지 말고 격려를 해주십시오.

"잘한다. 할 수 있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는 건강하다"고 위로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 말이 굉장한 용기를 주고 치료를 주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치료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회개시켜서 변화시킬 뿐 아니라 몸의 병을 고쳐서 건강을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병고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정신적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독일 베를린성회 잠든 유럽을 깨우다

베를린 최대교회에서 열린 꿈과 비전을 향한 성령대축제



유럽의 중심 독일 베를린에서 4차원 영성을 주제로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독일 베를린 성회가 6월 3-4일 베를린 바이드만스루스터 담에 위치한 아우프템벤크교회(Gemeinde auf dem Weg, Church on the Way)에서 개최됐다. 이번 성회는 20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독일의 재부흥과 기독교의 연합을 위해 아우프템벤크교회의 볼프하르트 마기스 담임목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아우프템벤크교회가 주최하고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주관한 이번 성회에는 독일인들 외에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유럽인들을 위해 다국어로 동시통역됐다. '영적 갱신과 회복의 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성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영적으로 갈급한 유럽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대화할 수 있는 4차원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전했다.

마기스 목사는 "1989년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취리히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세계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때 가진 꿈으로 나의

사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고 성령운동을 통해 교회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마기스 목사는 "한국에 큰 부흥을 주신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자 조용기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독일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조용기 목사를 소개했다.

성도들의 환영의 박수 속에 주최 측 마기스 목사와 시가끼 목사의 안내에 따라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지금까지 독일은 기독교의 장자 국가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은 것 같다"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기독교가 새롭게 부흥했듯이 독일에 다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마음 속에 진정으로 모셔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용기 목사는 폐결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질병의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도 마음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가 "한국 전쟁 후 한국은 매우 가난했다. 그때 많은 한국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독일에 와서 일을 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한국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자 독일 성도들은 박수를 보냈다.

조용기 목사는 유럽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입술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이 됐다. 그 복은 우리에게로 이어졌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나아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 조용기 목사는 오병이어 기적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꿈과 비전을 가진 믿음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설교 후 조용기 목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 신유기도를 했다. 성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다. 기도 후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성도가 자신의 아이가 활기차게 뛰어도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미카엘 클렘 성도는 "25년 전에 베를린성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다시 듣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며 "기대하고 온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회에는 성회를 주관한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를 비롯하여, 최명우 목사(순복음강남교회), 김경문 목사(여의도순복음중동교회), 전호운 목사(순복음강북교회), 김종복 장로(외무행사경조위원장), 진중섭 장로(실업인연합회장), 김영도 장로(4차원영성글로벌포럼), 허순범 장로, 이종찬 장로가 동행해 성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실천적 믿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중략)...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중략)...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2~14, 20~25절>

선포하게 되면 한방에 물러가 버리게 되는데, 겁을 먹고 떨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는 영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우리들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배짱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뒤로 물러가고 부정적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우리 속에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오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4차원의 영성의 말로써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심령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명령하면 그 기도를 통해 결국은 그 문제의 산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영적인 4차원을 활용하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하나님이 높이 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

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3. 믿음이 역사하는 조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사랑하면 우리 믿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은 마귀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마음에 불안과 공포를 가져와서 우리를 패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제일 먼저 사랑했지만 나무도, 풀도, 짐승도, 물질도, 모든 만물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래 전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오렌지를 심어 놓고, 매일 아침 오렌지 밭을 지나가며 “사랑한다. 예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아주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해준 오렌지와 사랑을 말 하지 않은 오렌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사랑을 하면 사랑에 반응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 자라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칭찬해주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 끝나는 날까지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사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용서해줌으로 말미암아 4차원의 영성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데 미움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훼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용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특별히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고 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힘을 가진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을 품고 믿음을 사용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물론자는 자기를 믿고, 무신론자는 환경과 자연의 섭리를 믿고, 유신론자는 잡신 우상을 믿고, 종교인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천으로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1. 평범한 삶에 나타나는 변화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과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 기적을 나타내주시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상에서의 기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꿈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입술로 정확하게 표현 할 때 굉장한 힘이 되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꿈을 마음속에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속에 있다가 사라질 뿐이지만 그것이 입술을 통해 말하게 되면 4차원의 영성을 좇아서 입술의 고백을 따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John C. Maxwell)은 사람들 중 약 95%는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표를 글로 기록한 5%의 사람들 중에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글로 기록하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목표를 적고 입술로 표현해야 합니다. 입술로 표현하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창조적인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별 떨고 있습니다.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아무리 기승을 부릴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독일 베를린성회 이모저모



이번 성회가 열린 아우프템백교회(Gemeinde auf dem Weg, Church on the Way)는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가장 큰 오순절교회다.

볼프하르트 마그스 목사는 35년 전 처음 조용기 목사를 알게 됐고, 이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조용기 목사의 성령에 대해 열린 세미나에서 조용기 목사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4차원의 영성을 통한 성령사역을 해 교회의 부흥을 이뤘다. 7년 전에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성전을 가진 선교센터를 완공해 하나님 앞에 헌당했다. 이 선교센터는 최근 10여 년 간 이어진 독일 교회 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

조용기 목사, 유럽 총회 소속 선교사 격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6월 4일 오전 순복음선교회 유럽총회 소속 목회자들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순복음선교사들을 격려했다.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후원으로 열린 조찬에서 조용기 목사는 “우리 선교사들이

유럽복음화에 앞장서니 감사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예수를 체험해야 한다.

예수를 체험하는 것은 오순절신앙의 성령체험이다. 그 하나가 병 고침의 은사다. 병든 이들을 위해 성령님을 의지해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총회장 김용복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이 선교사역을 시작한 베를린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선교사들이 큰 힘을 얻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독교 신학의 본거지인 유럽에서 신학적 이론으로는 목회에 성공할 수 없다.

오직 성령충만을 통한 교회부흥이라는 가르침에 우리 선교사들은 이제 교민 목회를 넘어, 현지인 복음화에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조찬에는 김한수, 조풍삼, 이진욱, 이영표, 박용식, 만국자 선교사가 참석했다.

베를린순복음교회도 방문

조용기 목사는 6월 2일 베를린순복음교회를 방문해, 김한수 담임목사와 성도들을 격려했다. 조용기 목사는 “고국을 떠나 이민과 유학 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로 해결하길 바란다”며 기도가 문제 해결의 비결임을 강조했다. 1974년 세워진 베를린순복음교회는 우리 교회 해외 선교지 1호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독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베를린순복음교회 건물은 지난 2003년부터 독일 종교청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매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2015년 1월 영구사용 허가를 받았다. 김한수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이 10년만에 교회를 방문해 메시지를 전해주시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베를린 지역 복음화에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